

정기명 여수시장, 공약 이행 속도감 높인다

민선8기 공약사업 보고회 개최
93개 공약 중 완료 35·추진 58
이행률 66.6%… 임기 내 완성

정기명 여수시장이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점검하며 이행에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정기명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6일 ‘민선 8기 하반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정 시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소·단장 및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7대 분야 93개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35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올해 상반기 대비 3.7% 상승한 66.6%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추가 완료한 공약사업은 △여수·문수지구 활성화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여수~거문항로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 사업 확대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남산공원, 문화예술행사 대표 공원 활용 등 총 5건이다.

시는 공약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매 분기 점검해 시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 회의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약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기명 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시정에 대한 신뢰와도 연관되어 있다”며 “남은 58개 사업이 임기 내 완성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분발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남도 내 시 단위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SA’를 획득했으며, 지난달 치러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광양시, ‘5만 명’ 서명 달성 기념식



광양시는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제 1호 기금사업’으로 선정된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의 범시민서명은 동 5만 명 달성을 기념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념식을 오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제자리 찾기 추진위원회와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6개월 만에 달성한 서명운동 5만 명 달성 기념식은 축하공연, 홍보 영상 상영, 추진 경과보고, 제자리 찾기 건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양시는 작년 12월 선포식 이후로 범시민 서명운동, 홍보 캠페인, 도자기로 재현하는 쌍사자 석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되찾는 운동을 알리고 제자리 찾기 사업에 대한 광양시민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향후 시굴 조사와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문화유산은 제자리에 있을 때 진정성이 있고,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다”라며 “광양시의 자랑스러운 쌍사자 석등이 하루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추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께서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여름철 중대재해 예방 당부
김순호 구례군수

구례군이 안전한 작업 현장 조성을 위한 여름철 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

김순호 군수는 5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빈틈 없는 현장 점검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사업장과 시설물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군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 대상 적극 발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방제 철저, 휴식리기 박람회 준비와 홍보 등 군정 현안에 대한 꼼꼼한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물놀이 안전요원 등 여름철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각종 공사 현장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강조했다.

군은 지난 7월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직자 직무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5일부터 4주간 안전보건 관리 현장 47개소에 대하여 순회 점검을 실시하는 중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지난 5일 고흥군 관계자들이 동명대학생 등 40여명의 인력지원을 통해 왕우렁이 수거 캠페인을 시행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친환경 논 ‘왕우렁이 수거 캠페인’

평균 기온 올라 개체수 증가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5일 친환경농법에 사용된 왕우렁이로 인한 벼 값아 먹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 농협 관계자, 농가들과 함께 ‘왕우렁이 수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왕우렁이 농법은 제조제 없이 벼농사를 재배할 수 있어 농업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벼를 재배하는 농경지에 왕우렁이를 투입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겨울 평균 기온이 따뜻해 왕우렁이 월동 개체수가 증가하였고, 모내기한 논에서 잡초가 아닌 어린 모를 갉아먹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왕우렁이 월동 피해를 입은 친환경농법 인근 논지 약 430ha를 대상으로 왕우렁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예방 자재 및 살포비를 지원했다.

왕우렁이 관리를 위해 8월 말까지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왕우렁이 농법을 실천하는 농가가 농경지와 용·배수로 주변에서 유실된 왕우렁이를 자발적으로 수거하도

록 캠페인을 실시했다. 농번기를 맞아 부족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동명대 학생 등 40여 명의 인력 지원을 통해 왕우렁이를 수거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왕우렁이의 활용 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왕우렁이 농법을 실천하는 농가는 8월까지 투입한 왕우렁이를 수거해야 한다”며 “벼수확 후에는 관개용수 유입구와 배출구 등에 차단망을 설치하고, 동계작물 재배 또는 논 깊이갈이 등 관리의무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자동 가입… 타 보험 중복 보장

광양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총 23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부상치료비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개 물림 사고 △골절 수술 위로금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보성군, 폭염 피해 최소화 행정 강화 지시

폭염 취약지 현장 방문 등

보성군에 폭염 경보가 15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현장 행정 강화를 지시하고 폭염 취약지를 연일 찾아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난 5일 윤흥배 한우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보성읍과 득량면의 한우, 젖소 농가를 방문하여 농가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송풍팬, 냉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특히, 지난 6월 폭염 피해 선제 대응을

위해 6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축사환풍시설 1,549대 설치를 완료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가축 폭염 재해대책반 운영과 함께 9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공급,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친환경 축산 면역증강제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매일 피해 현황을 주시하여 폭염 취약 농가 전담단 운영, 현장관리 교육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 등 홍보활동도 강화했다.

이날 방문한 한우농가 윤모 씨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주신 김철우 군수님과 관계자분들의 노



고에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군에서 폭염 관련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가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성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살수차 운행, 폭염 재난 문자 발송 및 마을 방송 송출, 사업장 예찰 및 안전 수칙 준수 점검 등 밀착형 안전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



보성군청년새마을연대,
시원한 음료 나눔 봉사

보성군청년새마을연대가 7일 장날을 맞아 녹차골 보성향토시장에서 김철우 보성군수와 함께 시장을 방문한 군민들에게 시원한 음료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이번 냉차 나눔 행사에서는 보성군청년새마을연대 회원들이 미리 준비한 시원한 생수와 녹차 등 총 1000여 개를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장 상인들과 군민들이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며 전달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연일 폭염 속에서도 우리 군을 이끌어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새벽부터 준비해 온 음료를 군민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인사와 함께 전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화합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대일 청년새마을연대 회장은 “연일 계속되는 더위로 지친 군민들에게 시원한 음료 한 병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민섭 기자